

워커힐 “아이에게 아외서 힐링 선물하세요”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어린이 동반고객을 위한 ‘포레스트 키즈 캠프’를 개최한다. 14일부터 25일까지 4차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비스타 딜릭스 트윈룸 숙박과 아트&크래프트, 미니올림픽, JNGK 주니어 골프스쿨, 어린이 숲&캠핑 체험 등의 액티비티 프로그램, 뷔페조식 등으로 구성했다.



지금 국내기업들은 'NFT 도입' 러시

KT, 웹소설·웹툰 'NFT' 발행...3월 베타 서비스

(대체불가능토큰)

새로운 투자 시장 'NFT' 선점 경쟁 치열
KT, 스토리위즈 보유 콘텐츠 NFT 발행
블록체인 기반 사업 위한 전담 조직 운영
네이버·카카오·게임사들도 사업 본격화

국내 기업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에 쟁쟁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스타트업이나 게임사,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주를 이뤘던 NFT 사업 추진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인증서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버블 우려나 관련 제도 마련 등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전 산업군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KT, 'KT NFT' 서비스 출시 예정

KT도 NFT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룹사인 스토리위즈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웹소설과 웹툰 등 콘텐츠를 비롯해 부동산, 스포츠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룹의 강점과 기술력을 살려 NFT를 발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이익을 얻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를 위해 'KT NFT 베타 서비스'를 3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로 KT그룹이 제작 및 유통하는 콘텐츠의 NFT를 발행하고 콘텐츠와 관련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T NFT 베타 서비스 사전 알림 신청 페이지(위 사진), NFT 기반 예술작품 전시회에서 LG 올레드 TV를 통해 NFT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사진제공 | KT-LG전자

KT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도 운영 중이다. NFT는 물론 지역화폐, DID(분산식별자) 시민증, 전자문서 보관 및 유통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지난달에는 신한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NFT 기반 디지털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구축 공동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KT는 디지털 자산 사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 BC카드와 케이뱅크, KT 알파 등 그룹사는 물론 블록체인 전문기업, 자산보유 기업 등과의 제휴협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전·유통·금융도 NFT

KT가 NFT 사업에 적극 나선 이유는 시장이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10억 달러(1조2000억 원)였던 글로벌 NFT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억 달러(47조9000억 원)로 확 커졌다. 유튜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 다퉈 NFT를 도입하려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관계사 라인이 NFT 플랫폼 자회사인 라인 넥스트를 설립하고, NFT 플랫폼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NFT 유통 플랫폼 클럽토크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나 혼자만 레벨업' NFT가 1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코빗과 업비트 등 암호화폐거래소도 NFT 마켓을 운영 중이다.

게임사들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넷마블은 실제 도시 기반 메타월드에서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고 NFT화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를 준비 중이다. 크래프톤은 서울옥션블루와 엑스바이블루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NFT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가전과 유통, 금융업까지 관련 사업을 시험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개인 소장품이나 사진을 NFT로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마이 NFT' 서비스를 오픈했고, 롯데홈쇼핑은 4월 모바일 앱을 통해 NFT마켓을 론칭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에서 NFT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2022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속가능성 포럼'에 참석한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왼쪽)와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사진제공 | P&G

“지속가능 미래 위한 기업 협력 방안 모색” P&G '2022 지속가능성 포럼' 성황리 개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가 최근 '2022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속가능성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구를 위한 희망'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협동 방안을 모색했다.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1960년부터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온 1세대 동물보호 및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를 비롯한 세계 환경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한 크고 작은 행동을 취할 때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의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인 형태준 부사장이 참석해 환경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및 지속 가능한 유통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형 부사장은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와 대화를 통해 한국P&G와의 공동 캠페인은 물론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 등 이마트 자체 지속가능성 활동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속 이마트 내 친환경 제품의 매출 성장을 사례로 들며, 지속 가능성 추구는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케스바란 수란젠 P&G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역 대표는 “비즈니스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P&G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환경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증가하는 목디스크 환자, 척추내시경 치료로 개선 가능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목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목디스크 환자는 2014년 87만여 명에서 2017년 9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목디스크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을 사용시간이 늘

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운동 부족인 사람이 앞으로 고개를 쭉 내민 상태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경추가 일자로 퍼지거나 역 C자 형태로 굽어질 수 있다.

목디스크는 초기에 목 주변에만 생기면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손, 팔, 어깨까지 전해진다. 목 주변 근육

이 뻣뻣해지고 굳는 통증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경추에 디스크가 발생하는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질환이다. 목디스크는 중추신경까지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뇌와 척수로 이뤄진 중추신경은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에 유관중세가 나타날 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수술적 방법으로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 목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척추내시경

술이다. 절개 없이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 초고 해상도 내시경을 삽입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흉터가 거의 없고 빠른 회복과 짧은 입원 기간이 큰 장점이다.

목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스트레칭으로 뭉친 목 근육을 풀어주고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병원 김형석 대표원장



2022년 겨울, 알래스카급 추위를 이겨내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봄철까지 쪽~ 착용 가능한 상하세트 49,800원

www.style49.com

가능성 · 스타일 · 활용성
모두 겸비한 베스트셀러로 구성!

모노의 계절 남자는 블랙!



1번형
상하 세트
49,800원

자켓 블랙 / 바지 블랙

100% 국내생산 원단
카고 조거 밴딩 바지

젊은 오빠는 오직 네이비!



2번형
상하 세트
49,800원

자켓 네이비 / 바지 네이비

무난함의 조화 베스트 치콜!



3번형
상하 세트
49,800원

자켓 치콜 / 바지 치콜



풀집업 카라 디자인
- 야외활동시 바람 완벽차단



수납력 좋은 기습 포켓
- 소지품 보관에 실용적 디테일

플리스 자켓 북극곰도 울고갈 포근한 양털 느낌 가득! 직장인 단체복으로도 안성맞춤!

보아플리스 자켓은 남녀공용인 프리미엄급 아우터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복·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준다. 가볍고 우수한 보온성을 자랑하는 소프트한 플리스 원단에 포근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착용 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다기능 상품이다. 양쪽에 포켓 지퍼가 있어서 간단한 수납과 나일론 방풍 안감을 적용하여 보온성을 강화하였다.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 예금주 : 이선희선스포르츠

카고 기모 바지 체감온도 5°C 상승, 사방스트레치 원단으로 신축성 업 무게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기모 안감을 적용해 울겨움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동계용 카고 조거 밴딩 바지를 출시하였다. 편안함을 위해 소프트한 터치감과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를 적용하여 제작된 바지이다. 운동할때, 외출할때, 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밴딩 겨울바지이다. 흘러내리지 않는 고 탄력 밴드가 체형에 맞게 감싸주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다.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자켓 사이즈 95, 100, 105, 110(남녀공용)
바지 사이즈 95, 100, 105, 110

상하세트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시 부담)